



LAW SCHOOL

창
하
○

2024 VOL. 53

ALL ABOUT
LAW SCHOOL

2025학년도 LEET
전국순회설명회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
“The man who moves a mountain begins by carrying away small stones.”

- 공자 -
(Confucius, B.C. 551 ~ B.C. 479)

SPECIAL INTERVIEW	04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HOT ISSUE	06
POWER INTERVIEW	08
최갑인 변호사	
REAL STORY	12
이규상 학생	
백소진 학생	
CONTEST	18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SPECIAL REPORT	24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LAW TOON	28
소보로	
MOVIE TALK TALK	30
홍수정 영화평론가	
BOOK	33
AKLS NEWS	34

ALL ABOUT LAW SCHOOL	
2025학년도 LEET 전국순회설명회	
이사장 인사말	36
로스쿨 개요	37
교육과정 소개	38
장학금 제도	40
특별전형 선발제도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42
실무교육	44
변호사시험	45
법합적성시험 개요	46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48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57
2024학년도 법합적성시험 채점 결과	58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59
2025학년도 법합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60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이상경 이사장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윤철
위원 김명기, 김별다비, 송민경, 공태윤
편집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이상경 법전협 이사장, “경제적 부담 없는 로스쿨 교육 실현”

신년 인터뷰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상경 이사장이 걸어온 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위싱턴대 로스쿨 LL.M.(법학석사)
위싱턴대 로스쿨 J.D.(법학전문석사)
위싱턴대 로스쿨 J.S.D.(법학박사)
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現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
現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現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現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청룡의 해인 2024년에도 예비 법조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1월 11일 로스쿨타임즈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0월 부임한 이 이사장은 로스쿨 발전과 정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활장학금 모금이다. 지난해 로스쿨 도입 및 협의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모금된 공익사업비는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하나은행,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다수의 기업·기관·로펌이 기부한 것으로, 기부금은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이상경 이사장은 “법전원협의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가가 되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며, “생활장학금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려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CBT 시행을 협의회가 지난해 일군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 이사장은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논술형이 수기(手記) 방식에서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됐는데, 25개 로스쿨 원장님, 법무부 및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와 끊임 없는 소통, 공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로스쿨 원장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이사장은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로스쿨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격률이 반토막 난 현재로선 특성화, 국제화 등 로스쿨 내에 마련된 양질의 커리큘럼은 무용지물”이라며, 로스

쿨을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법원 등 유관기관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떠나갈 정책 방향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매년 300억 이상의 장학금을 마련해, 재학생의 50%가 부분 장학금을 받고, 20%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을 정도로 장학금 혜택이 크다”며, “지난 10월 법전원협의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01

제15회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1월 4일(목)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제15회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10개 팀 33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경연 결과 민사 부문에서는 고려대 팀이, 형사 부문에서는 서울대 팀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이상경 이사장을 비롯해 본선 진출교 원장이 참석했다.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 형사 분야 2위를 차지한 경희대학교 로스쿨 손태영 원우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04

건국대 로스쿨, 안철상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임명

3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올해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안 전 대법관은 건국대 법학과 76학번 출신으로 공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건국대 로스쿨에서 공법 실무에 관한 강의를 비롯해 연구 활동,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철상 전 대법관



이상경 이사장을 비롯한 원장단이 변호사시험장에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전북대 로스쿨 김동근 전 원장, 로스쿨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전북대 로스쿨 송문호 전 원장,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총장)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시행

1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나흘간(1월 11일 휴식일)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응시자 3,290명 중 3,264명(99.2%)이 CBT 방식을 선택했을 정도로 CBT 방식으로의 전환은 수험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로스쿨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은 시험 기간 중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경희대, 이화여대 시험장을 차례로 방문해 방문교 원장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격려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6일(화)로 예정돼 있다.

0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IBT 프로그램 개발

변호사시험 서답형 작성이 CBT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로스쿨협의회는 25개 로스쿨의 협조 아래 IB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터넷 기반 시험인 IBT 방식은 학내시험(중간·기말)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서답형 답안작성에 활용되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손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프로그램과 수험생들을 위한 동영상 튜토리얼까지 모두 제작된 상태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로스쿨 학내시험에 도입된다.



2월 6일(화), 법무부 관계자, 로스쿨협의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IBT 프로그램 시연회.

06

웃음꽃 핀 로스쿨 학위수여식

지난 1월과 2월, 전국의 로스쿨에서는 2023 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에는 로스쿨 원장과 교수를 비롯해, 해당 대학의 총장, 졸업생, 법조인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했다. 한편 25개 로스쿨은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2월 23일(금) 진행된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위수여식 현장(사진 제공=강원대학교 로스쿨)



3월 4일(월) 인하대학교 로스쿨 입학식(사진제공=인하대 로스쿨)

“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난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루라는 사실에 깨달음 얻어”

최갑인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환대와 연대, 용납과 우정, 인내와 사랑. 없애지지 않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기대하며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길 소망한다는 최갑인 변호사.

최갑인 변호사는 전업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힘써왔다. 그는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 변호사가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꾸었나.

A. 지금은 하늘에 있는 6살 터울의 형은 태어났을 때부터 최중도 뇌성마비였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형을 잘 보살피기 위해 특수교육을 공부해 교수가 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침 우리나라에도 로스쿨이 도입돼 진학했다.

Q.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A. 지금 생각해 보면 동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했던 시기가 가장 즐겁고 아름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당시에도 경쟁하는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밥을 먹는 공동체 문화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는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웃음).

Q. 로스쿨 졸업 후 현재 근무지인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했는데.

A.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고 공장 현역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 직후는 아니다(웃음). 제대 이후 주변의 도움 속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때 어필에서의 실무수습을 결정했다. 이곳에서 실무수습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당시 35살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어필은 주로 난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경험이 스펙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염려에서였다. 하지만, 수습기간으로 주어진 6개월은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어필에서의 6개월이 스펙이 되어,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근무까지 이어졌다.

Q. 첫 직장이었던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A.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

별받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학대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다. 특히 직접 사건을 맡아서 다수의 의뢰인을 만나곤 했는데, 공익변호사로서 현장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Q. 염전 노동착취 피해 사건(일명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A. 2021년 발생한 제2의 신안 염전 사건은 염전주가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당시 광주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기림 활동가와 함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염전에서 나와 자립했고, 직업 교육과 주거지원도 받는 등 일상을 회복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던 염전 사건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는데, 보탬이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 얼마 전에는 집들이에도 초대받아 다녀왔다(웃음).

Q. 공익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를 의미하나.

A.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이주·난민, 청소년, 탈북민 같은 소수자들에게 법적 조력을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수임료는 받지 않는다. 소수자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러움이 있다. 당연한 권리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들도 훨씬 많이 경험한다. 공익 변호사는 이들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소송을 대리해서 수행하거나 법령제·개정 등의 정책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이집트 난민 외에도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온 분들을 돕고 있다.

Q. 어필에서 진행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은 영주권을 받아야 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영주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영주 자격을 불허한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동료들, 인턴, 자원봉사자들과 회의를 거듭해 항소했고, 결국 재판 과정 중에 법무부가 소득 기준을 바꿨다.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웃음). 이렇게 작은 변화를 보는 것이 공익 변호사를 하면서 마주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자 보람이다.

Q. 애로사항도 있는지.

A. 많다(웃음). 공익 분야의 일은 성과와 변화가 더디게 찾아온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며, 인내하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고통을 토로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점, 그들의 토로를 오롯이 들어줘야 한다는 점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위안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된다.

Q. 난민 사건을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A. 2019년 어필에서 실무수습을 할 때 만났던 분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이집트에서 유명한 앵커로 활약했지만, 독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국까지 오게 됐다. 당시 잘 걷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그에게 사촌 형이 하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동행했던 기억이 있다. 약값을 지불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마로니에 공원을 걸었는데, 그가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 온 이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나에게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루였다는 사실이 많은 걸 깨닫게 해줬다.

Q. 공익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

A. 의뢰인의 병원에 동행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조력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의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공익 변호사는 법적인 업무만 할 수 없다. 오히려 다방면의 역량이 필요할 때가 더 많고, 활동가적인 면모도 필요로 한다.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시간을 통해 얻는 게 많다는 거다. 서면만 봐서는 한 사람의 삶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의뢰인을 만나서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마주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이 일을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Q. 공익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

A. '사려 깊음'과 '소박한 라이프스타일'이다. 우선 공익 변호사의 업무는 고통 속에 있는 당사자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법적 실력은 기본이다(웃음).

다른 하나는 소박한 라이프스타일이다. 나 역시 어필에 와서 변호사님들께 많이 배웠는데, 공익 변호사들 대부분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다.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Q. 급여나 워라벨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나.

A.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만큼 급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별고 있다. 어필에 와서 우리 사회가 소탈한 변호사들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한 생각들이 현재의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업무량이 적지는 않지만,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Q. 공익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A. 로스쿨 재학생들이 공익 변호사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실무수습·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해놨다. 어필에서도 지난 1월 실무수습생을 모집했다. 학기 중에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방학 기간에는 실무수습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로스쿨 제도의 장

점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Q. 공익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은?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해에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투병 끝에 소천하셨다.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지, 또 무엇이 결국 남는 일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변호사가 된 것이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어느 책의 문구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웃음).

Q. 향후 계획은?

A. 공익 업무와 일반 송무를 병행하는 법률 사무소를 만들고 싶다. 후원만으로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오늘날의 공익 사건들은 공익단체들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공익에 관심 있는 송무 변호사님들과 공익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전업은 아니더라도 일반 송무 업무도 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젊은 변호사들이 공익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다.

Q. 공익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A. 공익 변호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님께서 '공익 변호사 분야는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업에 있어 보니,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다. 꼭 '10년, 20년간 공익 변호사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어도 좋다.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Q. 어필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A. 이집트 난민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현재 난민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에서 난민 자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단계(2차)를 거치게 된다. 어필에서는 대개 이의신청 단계부터 법원 소송까지 조력한다.



염전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컨퍼런스 발제자로 참여한 최갑인 변호사



염전 현장조사를 위해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며 촬영한 사진(사진 제공=최갑인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로고

로스쿨 입학 수기



이규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로 입학하게 된 이규상입니다. 감사하게도 입학 수기를 작성할 기회가 생겨, 제가 입시를 준비하였던 과정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후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전원 입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소위 '포스트-리트'라고도 불리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와 면접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제가 입시를 치르며 겪었던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한 저의 간략한 팁 등을 가감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II. 리트 준비 과정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을 시작한 건 3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개강까지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에, 매일 기출을 1세트씩 푼다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인데, 리트는 문항의 난도가 절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시간 역시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 주어진 시간을 엄수하여 풀이하는 것이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킹 시간을 고려하여 언어는 66분, 추리는 120분을 잡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1회독 당시에는 틀린 문제의 오답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언어이해에서 기술 소재, 추리논증에서 인문논증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고 어려웠기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추리논증에서 인문논증의 경우 답이 비교적 명확히 도출되는 수리추리, 논리게임 등의 영역과 달리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

여 논리적으로 정오를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었기에 '저만의 일관된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는 1월 말에 1회독, 2월 중하순에 2회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느라 리트 준비에는 많은 힘을 쏟지 못하였지만, 주말을 이용해 사설 모의고사에 수차례 응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여유가 있을 때 MDEET, 수능 등 국가시험 언어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리트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비롯한 타 문제들은 시간관리 용도 정도로 활용하시고, 오답에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강하고부터 리트 당일까지 한 달 정도는 생체리듬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은 시험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체리듬 맞추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시험 전날 긴장되어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일관된 시간에 잠을 청해 왔기에 무리없이 잠을 이루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양껏 발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응시하였습니다. 비록 언어 두 번째 지문에서 예상보다 시간을 더 쓰게 되어 중반 문제를 약간 날림으로 풀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기존에 수립한 루틴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도 제가 평소에 수립해왔던 루틴을 준수하며 풀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에, 이를 항상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문제풀이 루틴을 미리 개발하여 이를 체화시켜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자소서, 면접 준비 과정

성적이 나온 뒤, 지원교를 확정된 상태로 공동입학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때 개인별로 질문할 시간이 상당히 한정적이기에, 자소서를 비롯한 정성평가 요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기에, 본인이 궁금한 점을 최대한 자세히 준비해 간다면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 자소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교수님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던 점은 자소서에 쓰인 소재뿐만 아니라, 문장력, 문단 구성 등을 비롯한 자소서의 문장력 역시 꽤 비중있게 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같은 소재로 자소서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를 풀어내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법학 과목을 다수 수강하였던 점 이외에는 딱히 강점으로 어필할 만한 정성요소가 없었기에 자소서의 문장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려 하였고, 원서접수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많은 분께 부탁하여 자기소개서를 첨삭받고, 글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피드백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본인의 견해와 적절히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의 경우 과감히 바꾸고, 일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다수의 검토를 거쳤음에도 해당 표현 또는 소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대로 하였습니다. 요컨대, 자소서에 들어갈 소재를 어느 정도 확정된 시점부터는 글의 유기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부적인 표현 등을 다듬으며 문장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 스터디를 꾸려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다각적인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말을 많이 해 보면서 면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답변 자세,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교정할 수 있었고,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답변을 조리있게 구성하는 능력 또한 적절히 배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V.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법전원 입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긴장을 잘 안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리트를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우기도 하였으며, 원서접수 기간에는 본인이 쓴 자소서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수없이 검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고, 항상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끔은 목표를 이룬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깐이나마 행복에 깃든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마지막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과 피곤함에 찌들어 지칠 때,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정말 이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 때, 본인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로펌 해외 실무수습 후기



백소진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백소진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2주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LSW&BARUN 현지로펌으로 실무수습을 다녀왔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 실무수습 계기 및 기관 소개

저는 학부때 베트남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오기도 했고, 다문화 관련 봉사들을 통해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분들을 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남아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외대 로스쿨은 ‘외국어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지역 전문법조인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법 커리큘럼이 동남아법, 중남미법, EU법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동남아·인디아법’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동남아법 담당 교수님이신 변해철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자카르타 현지로펌으로 저를 포함해 동기 3명에서 해외 엑스턴십 실무수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다녀온 기관인 LSW&BARUN attorney&partners는 법무법인 바른과 2023년 전속 제휴 협약을 체결한 현지로펌으로서,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및 인허가, 시장 및 부동산 조사, 비자 및 체류허가 등의 이슈에 관한 자문 및 송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신 이소왕 대표변호사님께서 실무수습 기간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아시아나항공, 롯데상사 등 여러 국내 기업에 법률자문을 수행하셔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로펌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실무수습 프로그램

• 헌법재판소, 대법원 방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울타리 밖부터 경비원들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앞에 시위하고 계신 분들에 계셔서 내부 출입이 통제되어 내부는 아쉽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자카르타 지방법원 견학 및 재판 방청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 (South Jakarta District Court (Pengadilan Negeri Jakarta Selatan Kelas IA Khusus))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전반적인 재판정의 모습과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재판과 같았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정장을 입지만,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은 인도네시아 전통옷인 '바틱'을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간이 정장을 입은 분들도 보였으나, 대부분은 바틱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학교·관공서·회사 등에서 '바틱 데이'(Batik day)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바틱을 입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틱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이 느껴져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사법제도 및 법적 이슈 관련 자료 공부

또한,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사법제도와 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등에 관한 자료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동안 대표 변호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2009년부터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맡아 오셨던 여러 자문건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 쟁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 과제(리서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법적 이슈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과제로 했습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억8000만명에 이르는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AMDAL(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로 약칭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AMDAL의 실제 이행 절차는 여러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어서, 행정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 절차마다 노골적인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기업이 현지 법인을 세우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이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 체험 - 자카르타 근교도시 반둥



(위에서부터 아래로) 과제 중, 대표변호사님과의 대화, 지방법원 재판정 모습



(왼쪽부터) 로펌에서 실무수습기간동안 사용한 곳, 로펌 앞 기념사진



주말에는 동남아법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자카르타 근교도시인 반둥에도 다녀왔습니다. 땅꾸반 푸라후 화산, 까와뿌띠 등 관광지도 구경하고, 녹차밭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둥의 시내 중심지인 브라가거리를 구경하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등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음식들을 비롯한 여러 인도네시아 현지식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마르타박이라는 팬케이크랑 비슷한 인도네시아 길거리 디저트도 배달시켜 먹어보았는데, 맛있었습니다. K-POP의 영향인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사람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어서, 외지인임에도 2주동안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4. 마치며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사법 체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고, 현지 로펌을 운영하시는 변호사님께 실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이 겪는 법적 문제들에 관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칸막이 책상에 앉아 책만 보며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로스쿨 입학 전에 그려왔던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당장 눈 앞의 시험에만 매몰되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는데, 해외 실무수습을 다녀오면서 변호사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도 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일반적인 국내 로펌에서의 실무수습처럼 의견서나 답변서 등 서면을 써보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실무수습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도 많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변론 능력으로 승부하라!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의 헌법재판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는 총 70개 팀(210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앞서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헌법 사례를 분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소속 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자질과 품성을 배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독려했다.

치열한 접전을 마친 후, 김창종 전 재판관은 “이번 대회에서는 청구서나 의견서 내용도 충실했고 모든 참가자들이 열심히 해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고 강평했다. 이어 “올해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 현상들에 관해 늘 헌법정신과 기본권 보장에 미리 숙고하는 자세를 가지고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종 변론



개회사 하는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

강평 중인 김창종 前재판관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단체사진

◆ 참가 자격

- 본심 변론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
-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의 팀 단위 참가

◆ 대회 개요

개요	주요 내용
개최 공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참가 신청
예심(서면심사)	참가 팀이 제출한 서면을 심사해 본심 진출 8개 팀 선정 (청구인 측 4개 팀, 이해관계기관 측 4개 팀)
본심(구두심사)	① 1차 변론: 2개 조로 나누어 변론 진행 (조 구성: 청구인 측·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팀) ② 최종 변론: 1차 변론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4개 팀 선정 (조 구성: 청구인 측·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 팀)

◆ 수상 정보

상명	팀 이름	소속	상금
헌법재판소장상(대상)	재동순두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0만 원
금상	미니언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0만 원
은상	현재진행형 유스티티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0만 원
동상	승리추구권 정의의 종 법치주의 흥가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만 원
우수변론상	재동순두부 팀의 손영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만 원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법재판소장상(대상) 수상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손영준, 김현정, 서범창



김창중 전 재판관과 재동순두부 팀

Q.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A. 저희가 우승할 줄은 몰랐는데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내렸던 결정들 하나하나가 우승으로 연결되었으리라 생각하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학교 이름을 걸고 본심에 출전한 유일한 팀으로서 우승까지 차지하였는데, 훌륭한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님들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세 분이 함께 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 재동순두부 팀원들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자 성균관대 법전원 15기이며, 방향성과 가능성을 잘 살피는 손영준(가번)과 헌법에 자신감 있는 김현정(나번), 그리고 차분하고 꼼꼼한 서범창(다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부 시절 룸메이트였을 정도로 친했던 범창이와 참가하기로 했고,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았던 현정에게도 제안하여 결국 셋이 한 팀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Q. 팀명 '재동순두부'는 무슨 뜻인가요?

A. 공식적으로는 '순두부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 있는 야근 맛집인 '재동순두부'로부터 따왔습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 관계자 분들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을 원했고, 대회 당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PPL은 당연히 아닙니다(웃음).

Q. 경연대회 문제를 접한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나요?

A.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 사건을 맡은(청구인 측/이해관계인 측) 변호사라면, 어떻게 쓰겠는가?"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재동순두부 팀원들 모두 각자의 의견이 확실한 편이었기에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그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여 서면 단계를 접근했습니다.

Q.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A. 변론할 때에는 기초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논리와 근거에 매몰되어 편향적인 생각만 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계속해서 사실관계와 대회 규정을 살폈고, 실제로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요소를 활용할 때 이러한 경험들이 도움되었습니다. 즉석에서 확인이 어려운 외부적 통계자료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란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또 저희의 의견을 담은 서면 자료와 발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진행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적당한 강약조절로 재판관들과 시선을 맞추며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대회 직전 팀원들과 발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온전한 부분은 돋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논거와 이상향을 바라보는 결론을 한 데 엮어, 듣는 이가 설득될 수 있게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회 이후 팀원들과 찍은 인생샷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A. 대회가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경연일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디에 스크린이 있고 발표 자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부터 반론에 대한 재판론이 가능한지 여부나 여러 팀들에게 공통적으로 질의해도 괜찮은지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상황을 상정하여 연습했기에 현장에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우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소통을 중시하여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변론 중에 효과적으로 교환할까'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예컨대, "내가 첨언하겠다" "잘 모르겠다"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말하거나 쓰지 않고도 표현하는 방법

을 고안했고, 의견 불일치 시 통일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Q. 제11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한마디!

A. 많이 만나시고, 협력하세요. 서로의 의견이 매번 부딪힌다고 하여 팀워크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고 하여 팀워크가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최대한 자주 만나시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교환하시길 추천합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단순히 헌법 지식을 쌓는 경험부터 글과 말로써 누군가를 설득하는 경험까지 다방면으로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 만큼, 꼭 도전하시어 종로구 재동에서의 겨울날 기억을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Q. 손영준 팀원은 팀 대상에 이어 개인 우수변론상도 수상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공을 들여 준비한 제 변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재판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과정을 팀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의 팀워크가 빛났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웃음).

제1회 총상금 2,000만원! 로스쿨 &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2024년 3월 18일(월) ~ 5월 17일(금)



PART1 로스쿨 입학 수기	PART2 로스쿨 생활 수기	PART3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입학 준비과정 및 노력, 전형별 노하우 소개	법학과 친해지는 방법, 로스쿨에서의 즐거움	변호사시험 준비 방법, 영역별 고득점 팁

공모 기간 2024. 3. 18.(월) ~ 5. 17.(금)

참가 자격
PART1 2024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PART2 로스쿨 재학생(학년 무관)
PART3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모 주제
로스쿨 입학, 생활 전반에 관한 소개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수기

참가 방법
참가신청서와 지정된 원고 양식, 재학(졸업)증명서를 이메일(showe@leet.or.kr)로 접수
* 참가신청서 및 원고 양식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추진 일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 6월 중

참가 자격 *총 25작품 선정

구분	PART 1	PART 2	PART 3
대상	1작 (200만원)		
최우수상	1작 (150만원)	1작 (150만원)	1작 (150만원)
우수상	2작 (각 100만원)	2작 (각 100만원)	2작 (각 100만원)
장려상	5작 (각 50만원)	5작 (각 50만원)	5작 (각 50만원)

문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7

지난 3월 29일,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회사를 하는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주제발표를 하는 서보국 충남대 법전원장

1부 좌장을 맡은 정훈 전남대 법전원장

주제발표 ①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시험유형의 5일간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 과목이나 전문화 과목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이미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5~10년 이내에 폐강의 문제로 전임교원이 없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문제점) 매년 250~300명 정도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다.
- (선택과목 시험의 응시생 편중과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 선택과목 특정 과목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택과목 과 기초법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숫자가 모든 영역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합형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 개선)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을 3배 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객관식의 합격기준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 (객관식 시험의 분리 실시) ①법조윤리시험일(7월)에 3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②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③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 (응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 개선) 분리된 객관식 시험의 시기를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로 앞당기고 그 비율을 변경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 (응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 개정) 법률개정을 하여 객관식 시험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정하며, 응시 횟수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변호사시험 1회 응시로 인정하여 횟수 제한 규정의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②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 (CBT 논술형 답안의 채점 방식 변화에 따른 합격자 발표 시기 조정) CBT 방식은 전체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를 3월 말까지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온라인 채점 방식의 도입)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식을 도입하되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면 채점기간도 단축되고 세부 논점에 대한 충실한 채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지속성 제고 필요성)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합격 인원의 규모를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합격자 결정방법의 법정화 필요성) 의사의 경우 의료시장의 수급상황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거둬 고려되고 있지 않다.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만 법조시장의 수급상황이 합격자의 수를 결정할 때 또 다시 고려돼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정하는 방안) 매회 변호사시험 총 응시자 중 75%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주제발표를 하는 권건보 아주대 교수



2부 좌장을 맡은 송관호 동아대 법전원장

종합토론



최운철 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을 통합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CBT 방식을 발전시켜서 채점을 전산을 통해 직접하여 시험과 채점을 일원화하면 채점기간 및 채점관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훈 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은 변호사시험 주관식 시험과 함께 치러져야 하며,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P/F로 해야 한다. 주관식 시험은 현행 사례형만 시험과목으로 하고, 기록형은 교과에서 법정 교과로 하되 변시에서 제외돼야 한다.



정영진 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3학년 2학기까지 로스쿨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연관성이 적을수록 교육효과는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장석천 원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에 집중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과목의 학점 이수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 결정과 시기, 채점 기간 등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은 법무부의 사고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이진관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법원이나 사법연수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법연수원에서 좀 더 원활하게 출제 및 채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김기원 회장(한국법조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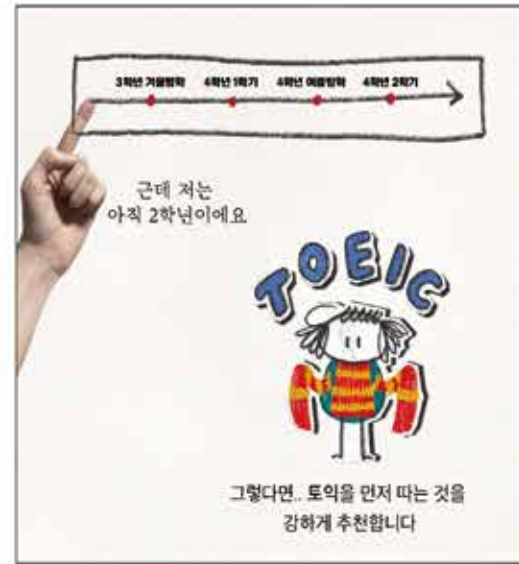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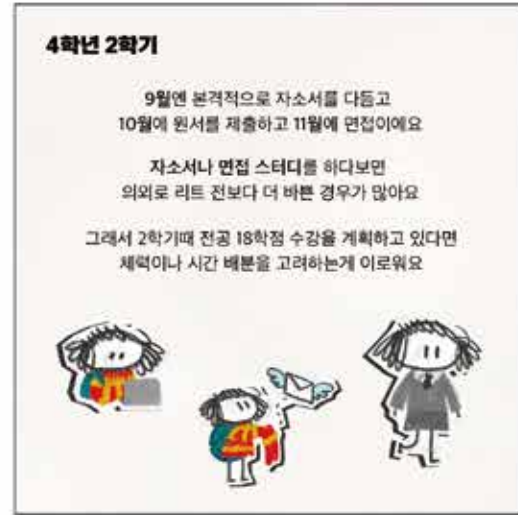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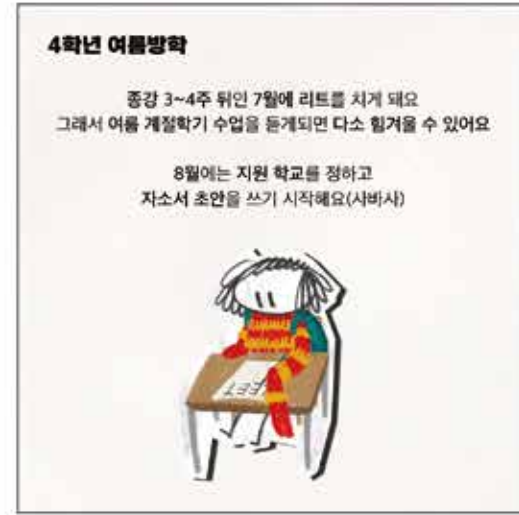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대신, 우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학업을 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상연 국장(법률저널 편집국)

변호사시험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는 발제자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객관식 문항은 공법과 형사법 각각 40문항, 민사법 70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각각 50문항과 100문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보로 : 로스쿨 재학생으로 인스타그램(@sobo_law)에서 로스쿨 그림일기를 연재하고 있다.



<탑건>부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까지...
새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영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1월 1일에만 시작하라는 법은 없다. 언 땅 사이로 봄이 피어날 때, 하지 않았던 결심을 할 때. 사랑하는 이를 마침내 만날 때 우리의 시간은 새로이 흐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시작이 있다. 낯선 곳에서 첫발을 떼는 일.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의 초입에 서 있거나, 그 길을 지나쳐왔을 것이다. 로스쿨.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는 알쏭달쏭한 곳. 그 입구의 근처에 선 이들을 위해 써보려 한다.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영화.

이런 주제에 관해서라면 빠질 수 없는 감독이 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스티븐 스피버그'.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쥬스>(1978), <이티>(1984), <인디애나 존스>(1985)부터 최근의 <더 포스트>(2018), <레디 플레이어 원>(2018),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2022)까지. 그는 마치 가족처럼, 너무 익숙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독이다. 스피버그의 영화에는 '시작'이 자주 등장한다. 모험을 위한 첫발을 떼는 순간들. 그중에서도 최근 스피버그가 연출한 <파벨만스>(2023)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파벨만스>는 소년 새미(가브리엘 라벨)가 감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렸다. 처음 카메라를 잡은 순간부터 처음 배우를 설득하고 관객을 울리는 순간까지. 꿈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소년의 눈에는 (스피버그 영화 대부분이 그렇듯) 희열과 함께 불안도 드리워졌다. 시작이란 본래 불안한 것이다. 여태 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이니까. 때로 두렵고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스피버그가 말하는 시작의 속성이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지만, 그래서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체험. 살 떨리는, 하지만 짜릿한 모험. 그러니 첫걸음을 앞두고 불안이 엄습할 때에는 스피버그를 생각해도 좋다. 모든 것은 모험의 일부일 뿐이라고.

시작을 다루는 영화 중에 좀 더 씩씩한 작품도 있다. <탑건: 매버릭>(2022)이다. 전설적인 파일럿 매버릭(톰 크루즈)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가 훈련 학교 교관으로 부임해 후배들과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 훈련생 입장에서는 몰랐던 것들을 새로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 이것은 로스쿨의 시간과도 닮았다.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두고 다함께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며 나아가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더 뜯어보자. 이들이 도전에 성공하는 과정에 대해. 파일럿들은 목표를 정교하게 수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별로 수행하며, 시간의 압박을 견디면서 계속 나아간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힘든 로스쿨의 과정을 이겨내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훈련하는 파일럿의 얼굴은 중력에 일그러지지만, 공부하는 로스쿨생의 얼굴은 고민에 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탑건: 매버릭>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 영화가 남긴 지혜를. 야심 찬 시작의 뒤를 잇는 것은 체계적인 노력과 인내라고. 최고의 탑건(조종사)이 멀지 않았다.

또 하나의 작품. 시작하는 이들이 보면 특히 좋을 영화가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2). 우연히 낯선 세계에 발을 디딘 치히로(히이라기 루미)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작품이다.

영화에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규칙이 등장한다. 자신



홍수정 영화평론가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영화전문지를 통해 등단
-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

의 이름을 잊지 말 것. 치히로의 이름은 그녀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 그렇기에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잊고 매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을 잊은 자는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저 부품으로 기능할 따름이다. 이런 설정은 우리의 현실과 조응한다. 입학, 취직 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우리는 본명을 잊은 치히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종종 잊는다. 이곳에 언제 왔는지, 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잊고, 목표했던 바를 까먹고, 하루하루에 파묻힌 채 살아간다. 그렇게 하루 더 버티는 것에 안도하며 그저 그런 나날을 살아간다. 어느새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데,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한 때의 치히로처럼. 하지만 필사의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상기할 때, 마침내 그 세계를 졸업할 수 있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이를 위해서는 곁에 있는 이들의 조력이 필요하다. 치히로의 처음을 기억하는 하쿠(이리노 미유)처럼 말이다. 우리는 우정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온천을 떠나는 치히로와 하쿠의 모습이 산뜻하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작품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이다. 은퇴를 반복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다. 여기에도 새로 시작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마히토(산토키 소마)는 우연한 계기로 신비의 탑 안에 들어선다. 그곳은 현실과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좌충우돌한 끝에 마히토는 이 세계를 수호하는 큰할아버지(히노 쇼헤이)를 만난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곳을 지킬 것을 제안받는다. 그러나 마히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침내 탑은 허물어지고, 모험을 끝낸 마히토의 손에는 탑의 유산이라 할 만한 흰 돌 하나가 남는다. 마히토의 친구 왜가리(스다 마사키)는 말한다. 의미 없다고. 그 돌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마히토는 알고 있다. 설사 모든 기억을 잊는다 하더라도, 이 모험의 의미는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 그는 단순히 탑의 세계를 계승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리라 결심한다. 그러면서도 탑을 전부 잊지 않고 그 일부(흰 돌)를 손에 쥘다. 기성세대를 배덕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의 모습이 다. 여기에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끝내 존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태도가 녹아있다.

다소 엉뚱해도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다. 마히토가 입성하는 탑은 로스쿨, 큰 할아버지는 기성 법조인이라고. 탑에 들어서는 당신은 그곳의 규칙을 외우느라 애를 먹을 것이다. 매 순간이 위기라고 느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 시간도 끝난다. 나는 그때의 당신이 마히토 같으리라 상상한다.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재건하는 담대한 아이. 그러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새로 도약하는 사람과 세대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호들갑 떨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하얀 눈 위에 처음 찍는 발자국은 어여쁘다. 중요하고도 낭만적인 순간. 그래서일지 모른다. 시작에 관한 영화가 이토록 많은 것은. 거기에는 인생의 첫 순간들에 대한 감성과 사유가 묻어있다. 비단 로스쿨이 아니면 어떻겠는가. 선 곳이 어디든, 새 발걸음은 그 자체로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 응원한다. 우리의 시작을.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이 직접 기획한 공식 해설서
- 출제에 참여한 최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해설
- 2024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언어·추리 11회분 해설수록
- 시험 대비는 물론 지적 즐거움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훈련까지!

「법학적성시험 문제해설」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출제 근거에 기반한 명료한 풀이가 수록돼 있어 시험 대비는 물론 지적 즐거움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훈련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판 매 가 격	18,000원 ~ 22,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문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매년 6월, 8월, 10월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출제·시행하고 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영역별 문제와 출제진의 해설이 담긴 해설집을 발간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 작 대 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판 매 가 격	10,000원 택배비 5,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신 청 방 법	상시 주문,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lawschool@leet.or.kr) ※ 자세한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참고



2024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

2월 19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2024년도 제2차,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이번 합숙은 올해 8월과 10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상경 총괄위원장(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외 86인의 출제진이 참여했다. 합숙 기간이 기존보다 1일 연장됨에 따라 출제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제 문항의 질 제고 및 검토와 수정을 진행했다.



법전원협의회 제65차 이사회 및 제69차 총회 개최



3월 8일(금)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5차 이사회 및 제69차 총회가 열렸다.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2023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5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앞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법전원협의회 신임 임원 선임 등이 논의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2024.1~3월 취임, 학교 가나다순)



박경철 원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원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원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석 원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



김덕중 원장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원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원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ALL ABOUT LAW SCHOOL

2025학년도 LEET 전국순회설명회



이사장 인사말



친애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이상경입니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로스쿨 제도를 비롯해 법학 적성시험의 유형과 문항 등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꾼 역사적인 변화였고,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로스쿨은 18,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했고, 이들은 현재 법원, 검찰, 법무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8,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기까지 25개 로스쿨은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대학교 출신도 일정한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사회적·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장학금, 생활비 지원에 많은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매년 31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전체 재학생의 50%는 장학금을 받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수험생 여러분!
전국순회설명회에서는 이제 막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댄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제공되는 정보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등을 활용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로스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상경*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설치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가능(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로스쿨이 학생 1인에게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해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해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의 융합을 추구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

» 교육과정 개요

이론 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과 목	내 용
공 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 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 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법조윤리	·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구,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

학교명	내용	학교명	내용	학교명	내용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전남대	공익인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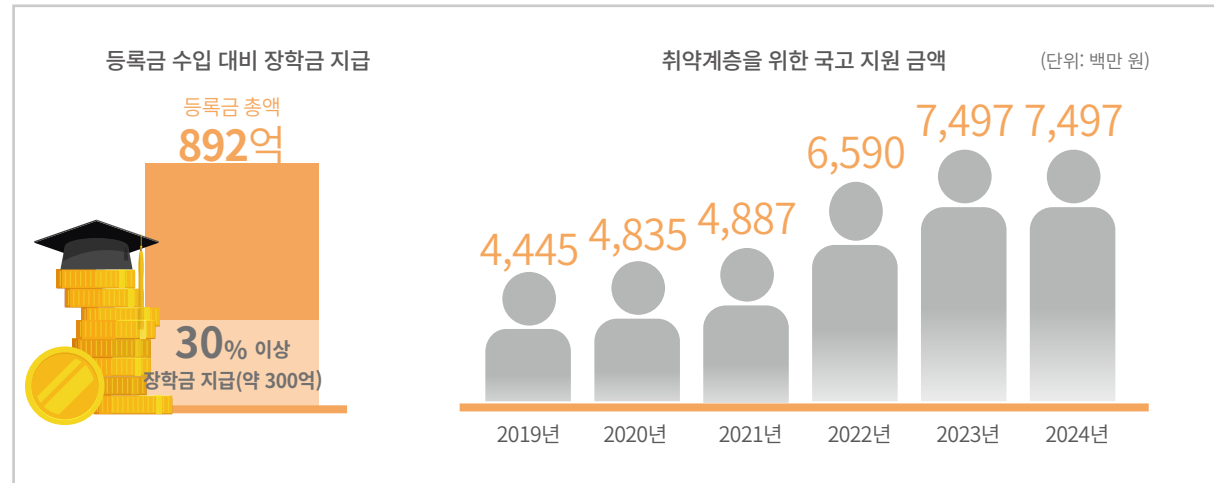
»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각기 다른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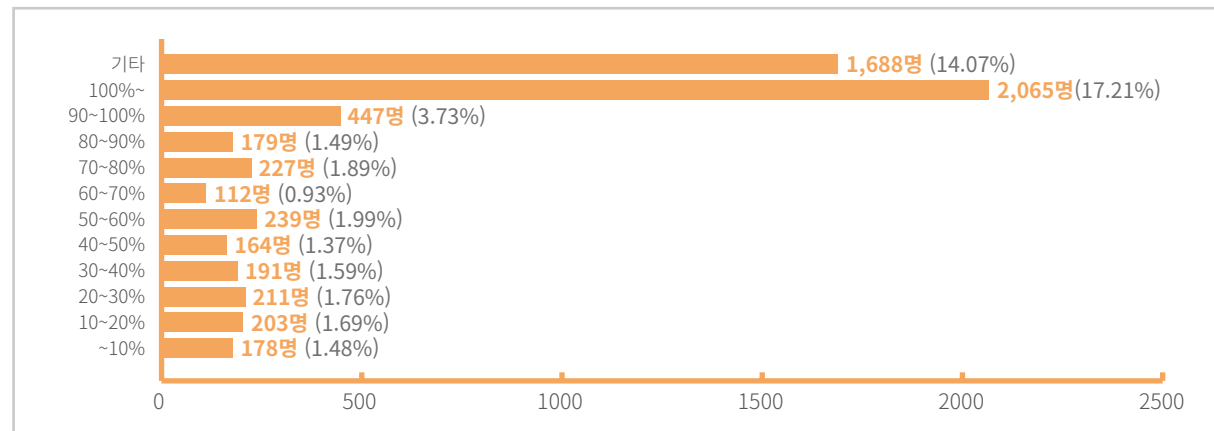
장학금 제도

-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전액장학금 지급 비율

- 2023년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9.20%(5,904명)이며, 등록금의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7.21%(2,065명)에 달했다.



※ 1,2학기 정원 12,000명 기준
 ※ '기타'는 소득분위 미신청자, 소득분위를 상관하지 않고 지급되는 장학금(성적 장학금, 연구조교장학금 등) 수혜자.

가구 연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 현황(2023학년도)

-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부터 소득10구간 및 기타 재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분	지급인원	비율	누적 비율	등록금 100% 이상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07	4.23	4.23	
소득 1구간	499	4.16	8.39	
소득 2구간	298	2.48	10.87	
소득 3구간	331	2.76	13.63	
소득 4구간	352	2.93	16.56	
소득 5구간	162	1.35	17.91	
소득 6구간	433	3.61	21.52	
소득 7구간	213	1.78	23.29	
소득 8구간	381	3.18	26.47	
소득 9구간	228	1.90	28.37	
소득 10구간	230	1.92	30.29	
기타	2,270	18.92	49.20	
합계	5,904	49.20		

※ 2023학년도(1,2학기) 재학생 12,000명 기준
 ※ '기타'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장학금(성적 장학, 근로장학 등)



장학금 지원 순위 및 지원 비율(교육부 기준)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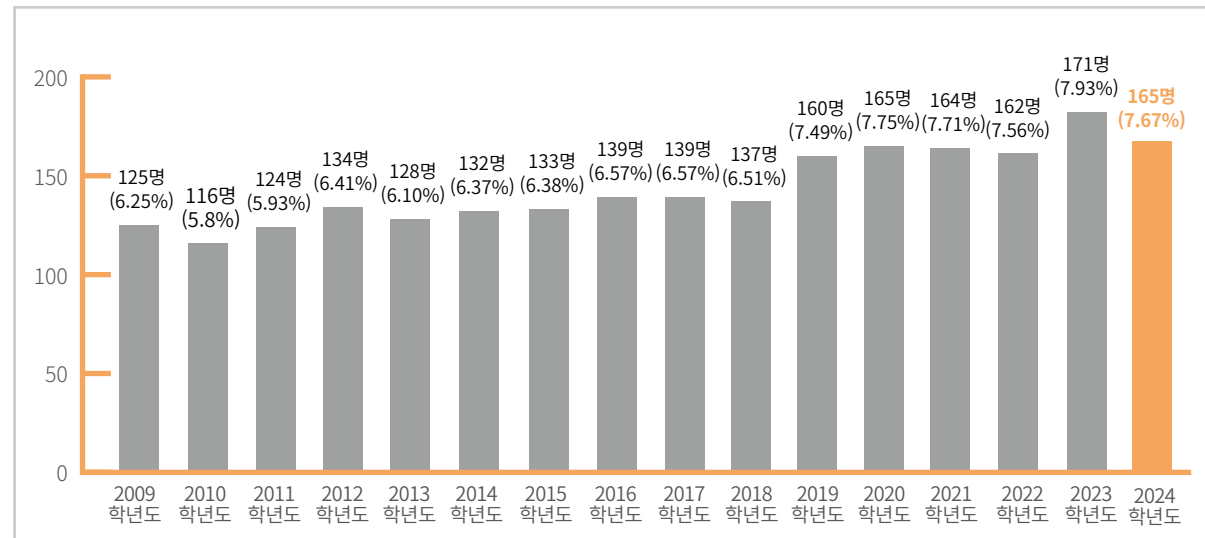
특별전형 선발제도

» 특별전형 선발제도

•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2,294명(2009년~2024년)

- 선발현황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음.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장애등급 6등급 이상(본인에 한함)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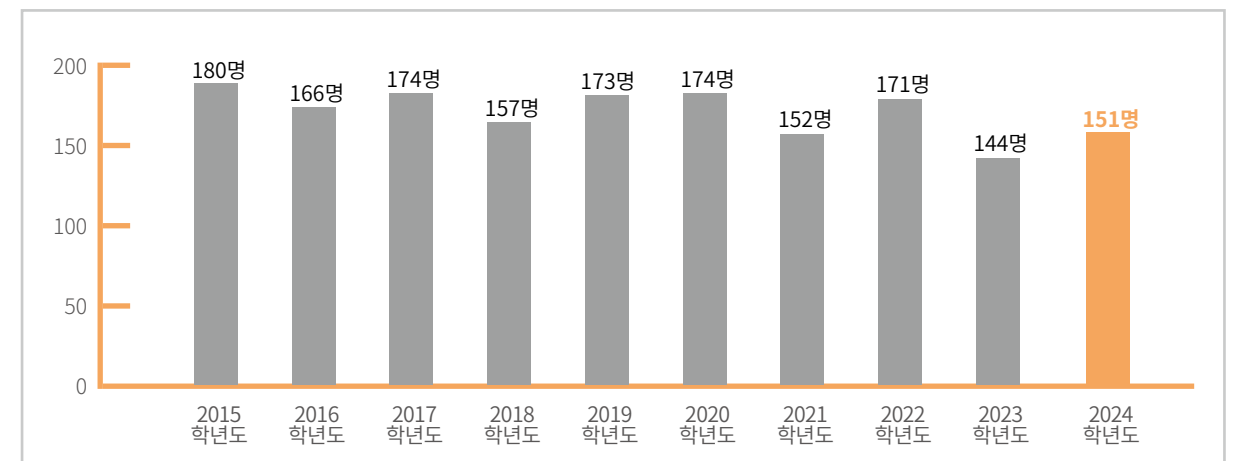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제주 : 입학자의 5% 이상 선발

- 강원 :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자의 15% 이상 선발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천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 입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감히 도전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에서 3년간 학비 면제와 매달 100만 원씩 생활장학금까지 지원받음으로써 진정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실무실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저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광주 지역 법무법인에 입사해 현재 책임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음에 따라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 저의 자녀들 역시 광주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현상에 관심을 두고 법조인으로서 조력할 수 있는 일에 나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로스쿨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대상	• 로스쿨 재학생
실습기관	• 로스쿨 업무협약 체결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등 • 기업(삼성, LG, KT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실습기간	•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유관기관의 실무강의 지원

- 로스쿨은 판사, 검사 등 현직 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기관	과목명	파견인원(2023년도)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23명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로스쿨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법무부	검찰실무	14명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	경찰실무	15명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로스쿨에 파견하여 운영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사진출처 :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 하에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로스쿨에서 배운 법 이론과 판례를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로스쿨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한다.

변호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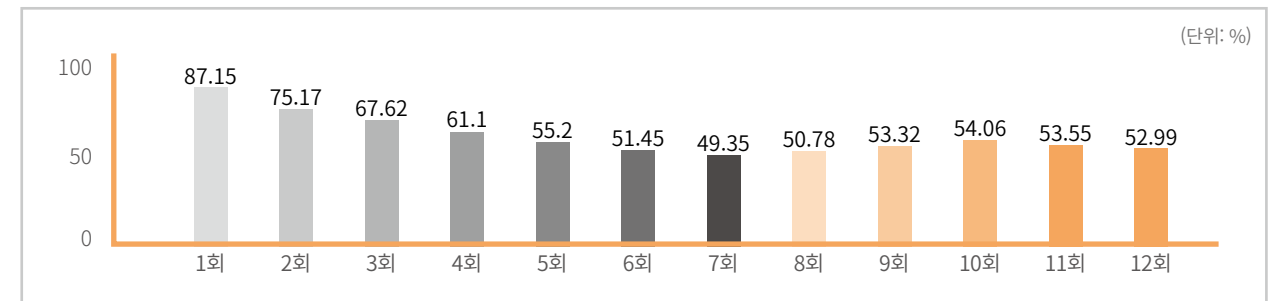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참고]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시행) 합격자 통계

합격률		성별 합격자		전공별 합격자	
합격	1,725명(52.99%)	남성	921명(53.39%)	법학 전공	339명(19.65%)
불합격	1,530명(47.01%)	여성	804명(46.61%)	법학 비전공	1,386명(80.35%)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24.4월 예정

[참고]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학적성시험 개요

»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활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영어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함.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4.7.21.(일)에 실시한다.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서울', '수원', '부산'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일정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4.1.17(수)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https://leet.uwayapply.com/
2024.5.27(월)~6.5(수)	온라인 원서 접수	
2024.7.2(화)	수험표 교부	
2024.7.21(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24.8.20(화)	성적 발표	https://leet.uwayapply.com/
2024.8.22(목)~8.23(금)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장소: aT센터(양재동)

» 응시 수수료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경제적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 공통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 문항 분류표

내용 유형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주제, 구조, 관점 파악

- 제시문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글쓴이 포함)이나 이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3)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4)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한다.
- 문항 분류표

내용 유형	문항 유형	추리		논증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논리학·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언어 추리

- 함축 및 귀결: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원리 적용: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해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사실관계 추리: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시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모형 추리

- 형식적 추리: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한다.
- 논리게임: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수리 추리: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3) 논증 분석

- 명시적 요소 분석: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암묵적 요소 분석: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구조 분석: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4) 논쟁 및 반론

- 논쟁 분석 및 평가: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반론 구성: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오류: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5)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 논증 평가: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강화 또는 약화: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문제해결: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 평가 목록 분류표

내용 유형	문항 유형	분석		논증			
		논제 분석	사례 분석	논증	비판	전개	표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복합							

(1) 분석

-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사례 분석: 주어진 사례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2) 구성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비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을 측정한다.
- 전개: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언어이해] 2024학년도 출제문항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보편화된 고전적 정식에 따르면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인데, 그 맹아는 이미 플라톤에게서 보인다. 그런데 진리를 가리키는 플라톤의 용어 ‘오르토테스’와 ‘알레테이아’,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베리타스’ 사이에는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명제뿐 아니라 하나의 단어도 이미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한 「크라틸로스」에서와 달리 「소피스테스」에서 플라톤은 말은 그것이 명제일 때, 즉 주어-술어 연결을 통해 사실성을 주장하는 연표일 때 비로소 진릿값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테아이테토스는 앓는다.’와 같은 참 명제에서는 ‘테아이테토스’와 ‘앓는다’의 존재하는 연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존재하지 않는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연표된다. 반면 ‘테아이테토스는 난다.’와 같은 거짓 명제에서는 ‘테아이테토스’와 ‘난다’의 존재하지 않는 연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존재하는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연표된다. 오르토테스란 명제가 참임으로써 성립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알레테이아 곧 ‘비은폐성’을 진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제시한다. 태양 없이는 가지계의 사물들은 비가 시적이고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태양 덕분에 비로소 사물들은 보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좋은 이데아’ 없이는 가지계(可知界)의 이데아들은 인식될 수 없고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 이성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 좋은 이데아 덕분에 비로소 이데아들은 인식될 수 있다. 태양 빛이 사물들의 가지성과 우리의 시각을 연결하듯, 좋은 이데아는 이데아들의 가지성과 우리의 인식 능력을 연결한다. 즉 좋은 이데아는 이데아들의 알레테이아와 그것들에 대한 우리 인식의 오르토테스를 가능케 한다.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사물과 지성의 일치’로서의 베리타스는 ‘지성에 사물이 일치함’과 ‘사물에 지성이 일치함’, 즉 서로 대칭적 방향성을 지닌 사태적 진리와 명제적 진리로 나뉘는데, 존재론적 차원의 진리와 인식론적 차원의 진리가 함께 거론된다는 점에서 그의 진리론은 플라톤의 관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본래적으로’는 인간이 명제 형식으로 수행하는 인식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점에서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물이 신의 지성의 실천적 현시이기에 원칙적으로 이 세계에서 참되지 못한 것은 없으며, 참과 거짓의 문제가 발생하는 장은 주로 인간 지성의 영역이기에 진리는 결국 인간의 참 인식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의 철학사에서는 베리타스의 두 차원 중 명제적 진리가 담론의 주된 논제가 되는 경향이 종종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철학의 과제가 세계에 대한 ‘참인’ 인식뿐 아니라 세계를 ‘참된’ 것으로 이끄는 것에도 있는데 진리의 그러한 의미 한정은 철학 본연의 향도적 기능의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진리 담론의 범위를 명제 차원에 한정하더라도 고전적 정식에서는 중대한 구조적 난점이 발견된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명제 즉 인식의 참 또는 거짓을 따지려면 그 명제와 객관적 사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때 불가피한 무한소급이 발생한다. 진위 판단의 기준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어떤 인식과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식-사실의 비교는 기실 인식-인식의 비교가 되며, 두 번째 인식은 또 다른 사실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 또한 필연적으로 또 다른 인식이며, 이에 진리의 기준으로서의 ‘객관적 사실’에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다. 칸트는 이 무한소급의 근원을 우리 인식의 불가피한 순환 구조, 즉 주관성으로부터의 이탈 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의 사물, 즉 ‘현상’일 뿐, 결코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물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과학이 밝히는 자연법칙도 자연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경험의 조건으로서의 우리 심성의 내적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10.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에 관한 고전적 정식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그 최초의 맹아가 마련되었다.
- ② 말의 진위 여부는 명제의 차원에 한정된 문제라는 것이 플라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 ③ 플라톤의 진리관에서 좋음의 이데아는 이데아들과 인간의 인식 능력이 일치한 결과로 여겨진다.
- ④ 고전적 정식에서, 진리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판정 대상이 된다.
- ⑤ 사태적 진리가 진리 담론에서 경시되는 철학사적 과정은 철학의 향도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인문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중

11. ‘오르토테스’, ‘알레테이아’ 및 ‘베리타스’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성에 사물이 일치함’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물도 오르토테스를 성취하는 명제의 주어일 수 있다.
- ② ‘국가의 이데아’는 우리의 이성 자체의 힘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알레테이아를 성취할 수 있다.
- ③ ‘삼각형의 꼭짓점은 네 개이다.’라는 말은 존재하는 연결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언표하므로 오르토테스일 수 없다.
- ④ ‘이 몸이 새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말은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포함하므로 오르토테스 여부를 판별하는 대상일 수 있다.
- ⑤ ‘지고의 신적 지성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완벽한 이 세계’는 ‘사물에 지성이 일치함’의 경우가 아니므로 베리타스를 성취할 수 없다.

[정답] ①
 [문항 유형] 인문 -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난이도] 상

12. 밑글에 따라 칸트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진리의 또 다른 국면’에 대해서는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②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식에 대해 ‘사물에 지성이 일치함’으로서의 진리만이 그 성취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 ③ 「소피스테스」에서 개진된 플라톤의 진리관에 대해 인식과 사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가 발견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것이다.
- ④ 고전적 정식의 중대한 구조적 난점은 자연법칙에 대한 부단한 탐구를 통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최종 근거가 제시될 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 ⑤ 인간과는 다른 감각 능력을 지닌 생명체에게는 동일한 사물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다는 사실은 인식의 순환 구조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인문 -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난이도] 중

[추리논증] 2024학년도 출제문항

2. <원칙>에 따라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칙>

법률을 사건에 적용할 때 ㉠ 법률 규정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에 따른다. ‘통상적 의미’는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지 만, 법학계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가 있어서 ‘일상적 의미’와 다르면 ‘전문적 의미’가 우선한다. 만약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 하면 ㉡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또는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그래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 하면 ㉢ 입법목적 또는 유사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규정]

제1조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정년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조 ① 공무원으로 총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정년퇴직일의 1년 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X국의 갑은 A직 공무원으로 17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한 후 갑은 B직 공무원으로 재 임용되었고 이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갑은 B직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한 후 정년퇴직 일 2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갑은 총 22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충족됨).

[보기]

- ㄱ.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확립된 견해라면, ㉠만으로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 ㄴ.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 로 누린 바 없어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다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다.
- ㄷ. ㉣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조항을 고려해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 제2조 제2항 단서의 입법목적 이 명예퇴직수당의 실질적인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규범 - 언어 추리
 [난이도] 중

2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론>

사람들은 익숙한 순서대로 정보가 주어질 때 정보 처리가 수월하다고 느낀다. 정보 처리가 수월하다는 느낌은 대상에 대한 친숙함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대상의 호감도가 높아진다. 주재료와 최종 제품은 정보 자체에 시간적 흐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주재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에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을 제시하면, 역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누구에게나 같은 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대한 친숙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높을수록 작아질 것이다.

<실험>

무작위로 선정된 남녀 각 60명을 대상으로 먼저 올리브 비누에 대한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체로 남성은 친숙도가 낮았고 여성은 친숙도가 높았다. 남녀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는 올리브 비누의 재료인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비누보다 먼저 나오는 광고를, 다른 집단에는 올리브 비누가 올리브 오일보다 먼저 나오는 광고를 보여 주었다. 이후 네 집단 각각에 대해 올리브 비누에 대한 정보 처리의 수월성 정도와 제품 호감도를 측정하였다.

[보기]

- ㄱ. ‘올리브 비누 - 올리브 오일’ 순으로 정보가 제시될 때보다 역순으로 제시될 때, 남성은 올리브 비누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 ㄴ. ‘올리브 비누 - 올리브 오일’ 순으로 정보가 제시될 때보다 역순으로 제시될 때, 여성은 정보 처리가 더 수월하다고 느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 ㄷ. 모든 집단에서 올리브 비누에 대한 친숙도가 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 호감도를 비교했을 때,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면 이 결과는 <이론>과 양립 가능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사회 -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난이도] 중

[논술] 2024학년도 출제문항

1. <사례>를 읽고 병이나 정의 주장 중 하나를 택하여 <조건>에 따라 주장을 완성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병의 주장을 택할 경우
 - 가. 제시되어 있는 병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 나. 을의 입장을 반박하고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것
- 2. 정의 주장을 택할 경우
 - 가. 제시되어 있는 정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 나. 갑의 입장을 반박하고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것

<사례>

30년 이상 대학 교수 등으로 활동하여 온 저명한 미술가 갑은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는 벽화 제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국가 기관인 을은 대중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 한가운데에 시민들을 위한 가족 공원을 조성하면서 갑에게 공공장소의 이미지에 맞는 벽화 제작을 의뢰하였다. 갑과 을은 남자아이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미술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을이 실시한 외부 인사를 통한 사전 검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가족 공원의 담벼락과 기둥에 폭 2.8m, 길이 20m가량의 벽화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갑은 가족 공원이 완성됨에 따라 제작 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벽화의 소유권은 을에 넘어갔다. 그런데 1년 후 을은 벽화의 등장인물이 모두 남자라서 가족 공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을은 갑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원래의 규격보다 작게 절단한 후 벽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다. 그 후 을은 벽화를 가족 공원의 어느 공간에 방치하다가 인근 공터에서 소각하였다.

문학이나 음악 등 보통의 작품은 책이나 음반 등 복제물의 형태로 유통되므로, 그러한 복제본을 파손 또는 폐기하더라도 그것은 소유하는 자의 권리에 해당할 뿐 특별히 창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본을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훼손,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의견이 대립한다.

<입장>

갑 : 작가는 예술 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자기의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작품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작품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기관인 을이 해당 작품을 폐기한 행위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작가로서의 명예 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을의 벽화 파괴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 소유권의 내용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예술 작품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또한 갑의 작품 창작 활동에 간섭하거나 작품의 표현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기에 갑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단순히 갑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침해한 것만으로는 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예술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상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예술가라면 이후 자기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의 손에 맡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향 변화 등 어떠한 이유든 미술 작품에 싫증이 났다면 소유자가 해당 작품을 양도·교환·증여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제거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감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유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주장>

병 : 예술가는 자기 작품의 동일성 유지와 온전한 보존에 관한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는 예술가 자신의 사상, 노력, 명성, 명예 등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이나 음악 작품과 달리 미술 작품은 원본이 파괴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작가는 작품 원본의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유했다(…)

정 :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 자체가 사라지기에 병이 주장하는 예술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원본 작품의 작가가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계속 자신의 이익을 주장한다면, 해당 작품의 소유자는 그 보유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되어 오히려 예술 작품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된다. 그 결과 작가의 이익도 침해될 수 있다(…)

[문항 유형] 사례형

[난이도] 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접수기간 : 2023. 9. 18.(월) 09:00~22.(금) 18:00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전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212	18	230	230				5.73	6.00	5.75	5.75	6.08
건국대	37	3	40				40	124	15	139				139	3.35	5.00	3.48				3.48	3.4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333	28	361	347	24	371	732	6.05	5.60	6.02	6.20	6.00	6.18	6.10	5.38
경희대	55	5	60				60	259	21	280				280	4.71	4.20	4.67				4.67	5.77
고려대				111	9	120	120				330	42	372	372				2.97	4.67	3.10	3.10	2.85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79	33	412	406	26	432	844	10.24	11.00	10.30	10.97	8.67	10.80	10.55	10.66
부산대	55	5	60	56	4	60	120	225	28	253	240	24	264	517	4.09	5.60	4.22	4.29	6.00	4.40	4.31	3.88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8	10	208	233	9	242	450	11.00	5.00	10.40	12.26	9.00	12.10	11.25	7.88
서울대	139	11	150				150	323	50	373				373	2.32	4.55	2.49				2.49	2.76
서울시립대	45	5	50				50	163	42	205				205	3.62	8.40	4.10				4.10	4.56
성균관대				111	9	120	120				251	27	278	278				2.26	3.00	2.32	2.32	2.3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95	16	211	198	20	218	429	8.48	8.00	8.44	8.61	10.00	8.72	8.58	6.64
연세대				111	9	120	120				310	52	362	362				2.79	5.78	3.02	3.02	2.57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383	43	426	422	24	446	872	11.97	14.33	12.17	12.79	12.00	12.74	12.46	11.21
원광대	30		30	25	5	30	60	796		796	620	72	692	1,488	26.53		26.53	24.80	14.40	23.07	24.80	22.25
이화여대				92	8	100	100				252	24	276	276				2.74	3.00	2.76	2.76	3.07
인하대	21	4	25	25		25	50	123	23	146	164		164	310	5.86	5.75	5.84	6.56		6.56	6.20	5.76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21	44	265	260		260	525	4.33	4.89	4.42	4.33		4.33	4.38	3.92
전북대	37		37	37	6	43	80	245		245	283	38	321	566	6.62		6.62	7.65	6.33	7.47	7.08	6.28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145	10	155	149	3	152	307	8.06	5.00	7.75	7.84	3.00	7.60	7.68	8.18
중앙대	46	4	50				50	414	28	442				442	9.00	7.00	8.84				8.84	7.0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235		235	211	29	240	475	4.70		4.70	4.91	4.14	4.80	4.75	5.18
충북대	40		40	25	5	30	70	152		152	74	19	93	245	3.80		3.80	2.96	3.80	3.10	3.50	4.10
한국외대	46	4	50				50	196	19	215				215	4.26	4.75	4.30				4.30	3.64
한양대				93	7	100	100				190	11	201	201				2.04	1.57	2.01	2.01	2.22
합계	835	67	902	1,013	85	1,098	2,000	5,109	410	5,519	5,152	462	5,614	11,133	6.12	6.12	6.12	5.09	5.44	5.11	5.57	5.24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채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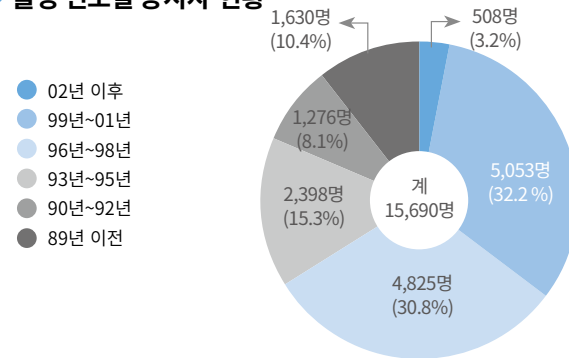
영역별 응시자 현황



언어이해
15,690명(91.7%)

추리논증
15,633명(91.4%)

출생 연도별 응시자 현황



성별 응시자 현황

남성
7,506명(47.8%)

여성
8,184명(52.2%)

계열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5,690명 중에서 사회계열이 3,559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194명(20.4%), 인문계열 2,930명(18.7%), 법학계열 2,580명(16.4%), 공학계열 1,108명(7.1%), 사범계열 729명(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표준점수 분포도

표준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90.0 이상 ~ 95.0 미만				19	0.1	0.1
85.0 이상 ~ 90.0 미만				80	0.5	0.6
80.0 이상 ~ 85.0 미만				505	3.2	3.9
75.0 이상 ~ 80.0 미만	1	0.0	0.0	843	5.4	9.3
70.0 이상 ~ 75.0 미만	13	0.1	0.1	2,221	14.2	23.5
65.0 이상 ~ 70.0 미만	117	0.7	0.8	2,080	13.3	36.8
60.0 이상 ~ 65.0 미만	472	3.0	3.8	2,157	13.8	50.6
55.0 이상 ~ 60.0 미만	1,321	8.4	12.3	2,923	18.7	69.3
50.0 이상 ~ 55.0 미만	2,482	15.8	28.1	1,546	9.9	79.2
45.0 이상 ~ 50.0 미만	3,219	20.5	48.6	1,209	7.7	86.9
40.0 이상 ~ 45.0 미만	3,180	20.3	68.9	1,164	7.4	94.3
35.0 이상 ~ 40.0 미만	2,478	15.8	84.7	461	2.9	97.3
30.0 이상 ~ 35.0 미만	1,363	8.7	93.3	328	2.1	99.4
25.0 이상 ~ 30.0 미만	704	4.5	97.8	83	0.5	99.9
20.0 이상 ~ 25.0 미만	300	1.9	99.7	11	0.1	100.0
15.0 이상 ~ 20.0 미만	26	0.2	99.9	1	0.0	100.0
10.0 이상 ~ 15.0 미만	2	0.0	99.9	2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12	0.1	100.0			
계	15,690	100.0		15,633	100.0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전체 합격인원

2,152명

특별전형 입학생 수

165명(7.67%)

성별,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구분	성별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전공	
	남성	여성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명)	1,049	1,103	431	1,721	171	1,981
비율(%)	48.75	51.25	20.03	79.97	7.95	9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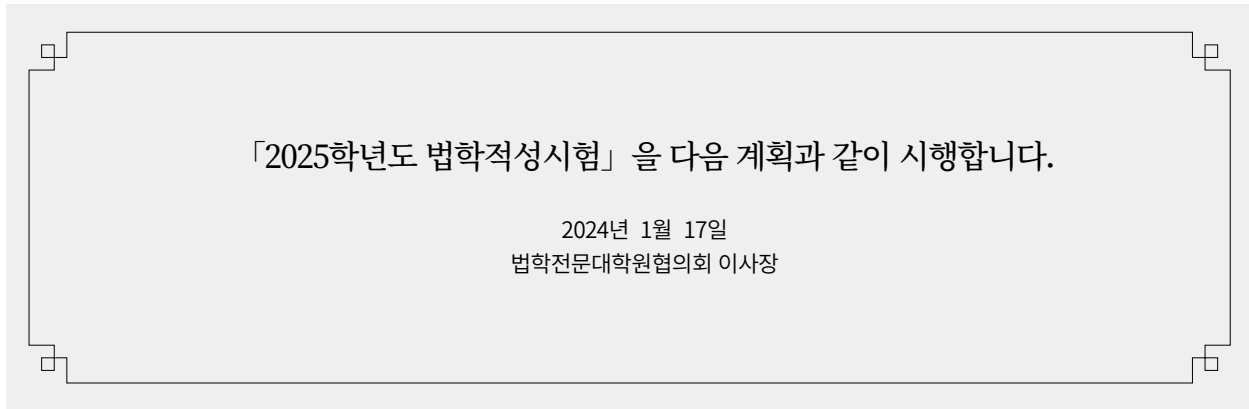
연령별

구분	22세 이하	23~25세	26~28세	29~31세	32~34세	35세 이상
인원(명)	58	959	735	247	89	64
비율(%)	2.70	44.56	34.15	11.48	4.14	2.97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회계열	274	323	597	28	27	55	302	350	652	30.30
상경계열	237	236	473	23	14	37	260	250	510	23.70
인문계열	119	205	324	12	17	29	131	222	353	16.40
법학계열	100	63	163	7	3	10	107	66	173	8.04
공학계열	87	36	123	6	3	9	93	39	132	6.13
사범계열	43	64	107	4	5	9	47	69	116	5.39
자연계열	53	45	98	4	2	6	57	47	104	4.83
의학계열	7	12	19	2	2	4	9	14	23	1.07
예체능계열	2	13	15	1	0	1	3	13	16	0.74
약학계열	5	4	9	1	0	1	6	4	10	0.46
농학계열	2	6	8	0	0	0	2	6	8	0.37
신학계열	2	0	2	0	1	1	2	1	3	0.14
기타	27	20	47	3	2	5	30	22	52	2.42
계	958	1,027	1,985	91	76	167	1,049	1,103	2,152	100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4. 7. 21.(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시험지구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 수험표 출력 시(7. 2.~7. 21.) 배정된 학교 확인

»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 출제 기본방향

-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 라.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 09시부터 6월 5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leet.uwayapply.com>]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 ~ 2024년 6월 5일(우체국 소인 기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수험생 본인 명의, ① ~ ⑥ 중 택 1>
 - ① 수급자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험생 본인 명의의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

라.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 6월 5일까지 : 100%(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 1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6일6월 12일): 60%(148,800원)
- 2차 :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3일 ~ 6월 26일): 50%(124,000원)
- 3차 :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7일 ~ 7월 17일): 40%(99,200원)
- 시험 3일 전부터(7월 18일 ~): 0%(반환불가)

»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20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함.

» 장애인 등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미디어플레이어, 무선이어폰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마트워치, 수험용 시계, 웨어러블 기기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물(투명한 용기에 담긴 생수) 이외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물병은 책상 아래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기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답안지를 교체하였더라도 성명, 수험번호, 답안 등 답안지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을 해당 시험시간 내에 작성해야 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부정행위 처리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지정된 시간 이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 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그 밖에 시험 관리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개인의 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참조하기 바람.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www.yls.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